

성인애착유형에 따른 이성교제 커플들의 관계만족

김 명 숙*
홍익대학교

이 연구의 목적은 성인애착유형별 조합에 따른 관계만족을 분석해 보고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유형과 요인을 알아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교제기간 3개월 이상의 실제 연애중인 커플 374쌍을 대상으로 성인애착유형에 따른 관계만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들의 평균 연령은 남자 26.6세, 여자 25.0세이었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성인애착유형별 남녀 조합에 따른 관계만족에서 안정형(남) : 안정형(여)의 커플이 만족도가 높았다. 반면에 집착형(남) : 거부형(여), 거부형(여) : 두려움형(남)의 커플들이 높은 불만족을 나타냈다. 특히 집착형(남)이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커플들이 문제해결의사소통차원에서 불만족이 높았다. 안정형과 조합을 이룬 거부형, 집착형은 만족도가 높았으나 두려움형은 높은 불만족을 보였다. 이결과는 안정형이 관계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가설을 부분적으로 성립시켰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대한 의의와 추후연구에 대한 시사점을 논의 하였다.

주요어 : 성인애착유형, 관계만족, 안정형, 두려움형, 집착형, 거부형

최근 10여 년간 우리나라에서는 이혼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2006년 통계에 따르면 주요이혼 사유는 성격 차이(49.7%), 경제문제(14.6%), 가족 간 불화(8.9%), 배우자의 부정(7.6%)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통계청 보도 자료 2007). 이혼은 당사자뿐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심각한 영향을 끼친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영향도 지대하여 정부를 비롯한 여러 사회기관 및 단체들이 이혼율을 낮추기 위한 노력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이 파탄에 이른 시점에서 이혼을 막기 위해 노력하는 것 보다 결혼 전에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는 요인들을 미리 제거하거나, 당사자들이 문제를 인지하고 서로

를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여, 보다 원만한 혼인생활 유지에 도움을 주는 것이 더 중요할 것이다(Spanier & Lewis, 1979).

위에 언급한 2007년 통계청 조사 이혼 사유 가운데 성격차이를 제외한 나머지 요인들은 결혼이후 부부가 혼인 생활을 유지하는 동안 발생하는 요인들이다. 이혼 사유 중 1위를 차지하는 성격차이는 결혼 전에도 파악이 가능한 부분이며 이는 이성교제기간의 관계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다. 따라서 결혼 전 이성교제 기간 동안 미혼남녀들이 자신의 성격특성과 파트너의 성격 및 행동 특성을 파악하고 이해했었다면, 그로 인해 예상되는 문제들에 대

* 교신저자 : 김명숙, (121-791) 서울시 마포구 상수동 72-1, 홍익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상담심리전공), 전화 : (02) 579-1611, E-mail : mskhim@hanmail.net

비하고 이해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결혼 후에 보다 더 원만한 혼인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한 개인의 성격특성은 어느 한 순간이나 특정 시기에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을 두고 형성된 경험의 결과이다. 그러나 오늘날 다양한 상담 및 심리치료 학파들은 그들의 이론과 기법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한 개인의 성격과 정신 병리의 발달에 어린 시절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는데 동의한다(Brisch, 장휘숙 역, 2003).

특히 애착이론은 유아 초기 부모와의 애착관계가 이후 성격발달과 대인관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Bowlby(1988)는 유아들이 받은 초기 양육 경험이 추후 개인의 사회적, 인지적, 정서적 발달에 광범위하고 지속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하였다. 양육자와 유아간의 강한 정서적 유대는 한 인간으로 하여금 어려운 상황에서도 안정된 반응을 할 수 있게 해주며 초기양육에서 양육자의 예측 불가능한 태도나 무관심, 거절, 학대, 이별, 주 양육자가 바뀌는 것 같은 중요한 혼란은 아동의 내적작동모델의 적절하고 기능적인 발달을 방해하며 발달적 정신 병리의 가능성을 증가시킨다고 했다.

Ainsworth와 Blehar(1978)는 Bowlby의 이론에 근거하여 '낮선 상황' 프로토콜을 고안했다. 이 연구는 아동들이 초기 애착대상에 대해 가질 수 있는 세 가지 애착형태를 <안정>, <불안-회피>, 그리고 <불안-양가>의 3가지 범주로 구분하고 각각의 애착형태에 대한 특성들을 기술했다. 애착의 이 3가지 범주는 대인관계와 행동특성을 설명해 주는데 학교생활을 통해 아이들을 추적 조사한 연구결과를 보면 안정적인 애착 아동들은 일반적으로 또래와 관계를 잘 맺고 양가적인 애착아동들은 또래를 괴롭히는 경향이 있으며 회피적인 애착아동들은 또래들에 의해 괴롭힘을 당하고, 수줍음을 많이 타는 것으로 나타났다(Bowlby, 1973, 1980, 1999; Bretherton I, 1980).

초기 부모와의 관계에서 형성된 애착의 특성은 유아기와 아동기에도 영향을 끼치며 성인기에도 그 특성은 유지되고 있다. Hazan과 Shaver(1987)는 애착이론을 성인의 낭만적 관계로까지 확대했다. 이들은 어린이들과 양육자들 간의 상호작용과 성인 연애 파트너들 간의 상호작용이 유사점이 있다는데 주목했다. 이들은 연애중인 사람들에게서도 그들의 애착유형에 따라 그들의 파트너가 곁에 있

을 때 안정감을 느끼고 파트너가 없으면 불안 또는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위와 같이 생애 초기에 주 양육자와 맺게 된 유대관계는 이후 사회적 관계에도 영향을 끼쳐 아동기와 청소년기를 거쳐 성인기까지 전 생애를 통하여 지속되며 (Bowlby, 1988; Rothbard & Shaver, 1994), 성인애착으로 이어져서 한 개인의 성격특성으로 발전하게 된다 (Mallinckrodt, 2000).

성격특성으로서의 성인애착은 성인관계 특히, 이성 관계나 부부의 친밀성과 관계 만족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Marchand(2004)의 연구에서 애착경향이 결혼생활에 영향을 주며 자포자기나 거절 경험에 대한 아내들의 불안은 부부간의 불일치 상황에서 배우자의 공격행동에 대해 분노로 표출될 수 있으며 이 분노와 공격적 행동은 부부간의 결혼 만족도를 떨어뜨린다고 하였다. 또 Scott와 Cordova (2002)는 안정애착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아내와 남편들에게서 결혼생활의 역기능과 우울에서 깊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바로 애착의 불안정성이 결혼생활을 역기능에 놓이게 하고 사람들을 우울증상으로 쉽게 빠지게 만든다고 하였다.

그리고, Pietromonaco, Greenwood와 Barrett(2004)의 연구에서는 불안정한 유형이 안정된 유형보다 문제해결에 있어 회피나 강제적인 방식을 주로 사용하며 회피적 특성이 높은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문제해결을 하거나 배우자로부터 떨어져 있으려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영주(2007)는 안정애착유형의 남자들이 불안정 애착 유형의 남자들보다 더 높은 의사소통 능력과 결혼관계 만족을 경험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성인애착유형에 따라 결혼한 부부 사이의 결혼만족도와 갈등해결과 의사소통 방식에서 분명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불안정한 유형들에서 나타나는 부적응적이면서 회피적이고 강제적인 부부유형의 경우, 관계의 점검 및 문제해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을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이미 결혼한 부부사이의 관계문제를 성인애착유형으로 설명하려는 시도와 연구들이 있어왔듯이 애착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아동기에 형성된 애착유형이 연인관계

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밝히기 위해 성인애착과 이성교제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도 수행해 왔다(한혜영, 현명호, 2006, 재인용). Lorig, Frank와 Joanne(2004)는 교제 중인 파트너의 일탈에 대한 용서여부를 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안정적으로 애착된 사람들은 불안정적으로 애착된 사람들과 비교하여 더 건설적인 방법 - 더 낮은 수준의 공격과 철회 보여주기, 파트너에 대한 지지와 더 높은 수준의 주장, 의심을 초래하거나 논쟁을 하는 중에 전체상황을 통합하는 행동들을 보여주기-을 쓰며 갈등해결에 있어 용서하는 행동을 하나의 전략으로 쓴다고 하였다. 또 성인애착과 대인관계의 심리적 거리에 대한 연구를 보면 회피적으로 애착이 형성된 사람들은 안정적으로 애착된 개인들보다 대인관계의 심리적 거리가 단혀있었고, 두려움 회피를 나타낸 사람들은 그들의 대인관계 거리를 멀게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Kaitz, Barihaim, Lehrer, & Grossman, 2004).

그리고 Powers, Pietromonaco, Gunlicks와 Sayer(2006)의 연구는 남자들에게서 불안정 애착된 개인이 안정적으로 애착된 개인보다 대인간 갈등에서 심리적 스트레스반응이 더 큰 패턴을 보였으며 불안정적으로 애착된 파트너를 가진 사람이 안정적으로 애착된 파트너를 가진 사람들보다 관계갈등에서 더 큰 스트레스 반응을 보였다. 특히 Shi(2003)의 연구를 보면 애착회피 특성을 가진 개인들은 그들의 삶에서 정서적으로 중요한 대상들과 깊고 긴 상호작용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머뭇거리며 애착불안 특성이 높은 사람은 자신을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곧 관계 속에서 애착의 불안과 회피가 갈등해결 행동을 지배하면서 건설적인 상호작용을 어렵게 한다고 하였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인애착과 관계만족간의 선행 연구를 보면 애착불안이 높고 친밀성이 낮으면서 의존가능성이 높은 학생일 경우 이성에게 기쁨을 느끼지 못하고 끊임없이 자신을 희생하는 양상을 보이며 지나치게 이성과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이재창, 이윤조, 2005). 노유진, 박정윤, 김양희(2006)는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불안정 애착이 형성된 사람들은 안정적 애착이 형성된 사람들보다 사랑을 할 때 소유욕이 강하고 강한 집착과 질투가 특징인 매니아 적인 사랑유형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또 안정적 애착이 형성된

성인들은 사랑을 할 때에 불안정한 애착이 형성된 사람들보다 부정적인 사랑의 성향을 보이는 경우가 적었으며 이성과의 관계에서도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높은 관계만족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수진과 노안영(2003)의 연구에서도 이성교제의 경험에서 안정형이 불안정형보다 더 진지한 사랑과 긴 기간의 이성교제를 하였으며, 자존감과 사회적 지지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복동(2000)도 불안정애착 유형 중 <불안-양가> 형이 <안정형>에 비해 거부당감과 부정적인 귀인경향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관계 만족에 있어서도 불만족 정도가 가장 높다고 하였다.

이로 미루어 결혼한 부부들과 마찬가지로 미혼남녀들의 이성교제에서도 성인애착이 갈등해결, 관계만족, 대인관계, 상호작용, 심리적 스트레스 등을 좌우하는 중요한 변인임을 알 수 있다. 위 선행연구의 결과에서 나타났듯이 <불안정 유형>은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이것은 불안정한 애착 유형이 이성교제에서 상당한 문제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파트너와의 관계를 악화시키거나, 이성교제의 발전이나 애정관계를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불안정한 애착유형은 파트너의 빈번한 교제나 관계 회피 등을 유발하고 결혼으로 이어 진다 하더라도 혼인생활이 원만하지는 않을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이처럼 불안정애착유형이 결혼한 부부나 교제중인 미혼남녀의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한다면 반대로 안정형은 자신의 파트너인 다른 유형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이라는 가설도 성립될 수 있을 것이다. 즉 안정형이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불안정 유형의 부정적 영향을 감소시켜 주거나 부정적 태도 및 행동을 변화시켜 관계를 긍정적으로 이끌 수도 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성인애착과 관련된 선행 연구들은 결혼한 부부들과 결혼 전의 미혼 남녀들에 대한 연구에 집중된 경향이 있었고 이성교제중인 커플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찾아보기가 어려웠다. 따라서 본 연구는 데이터 중인 커플들을 대상으로 성인애착유형을 적용해 보고 그것의 조합을 통해 불안정형과 안정형이 관계에서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 알아보고자 한다. 이에 성인애착유형조합으로 인한 영향을 이성교제 시 관계 만족도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주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주제 : 성인애착유형별 남녀 조합에 따른 커플들의 관계 만족은 어떠한 것인가?

가설 1 : 안정형이 불안정애착유형(거부형, 집착형, 두려움형)과 조합을 이루면 관계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성인애착유형이 커플들의 관계 만족도에 끼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이성교제 중인 미혼 남녀들이 자신의 애착유형과 파트너의 애착유형을 파악하고 심리적 결합의 안정성을 미리 측정해 보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는 전국의 20~30대의 미혼 남녀 중 이성교제 중인 성인으로 조사 수행사의 온라인 조사 패널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조사 수행사는 온라인 조사 전문 마케팅 & 리서치 기관으로 전국 약 23만 명의 패널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중 약 8만 명의 Active 패널이 있다. 전체 패널은 인구센서스 자료의 인구 구성비와 비례한다. 결혼적령기에 해당되는 20~30대 16,000명의 미혼남녀에게 설문 참여 메일을 보낸 결과 3,422명이 조사에 참여했다. 현재 교제중인 패널을 스크리닝 퀘스천(SCREENING QUESTION)을 통해 파악하여 1차 설문을 발송하고 1차 설문 시 이성의 정보를 파악하여 패널의 이성 친구에게 2차 설문을 발송하였다.

설문회수 비율은 21.4%, 응답률은 4.6%였으며 표집방법은 편의표본추출을 이용하였다. 총 484쌍의 응답자 중 적격대상자가 아닌 110쌍의 자료를 제외한 나머지 374쌍을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조사 참여자중 적격대상자가 아닌 경우-커플 중 한명만 응답하였거나, 기혼자, 20세 미만, 40대 이상인 경우, 미 교제, 허위커플, 응답최소시간범위미만으로 응답한 경우, 1인 다수조사 참여의 경우는 제외시켰다. 이중 허위커플은 설문 중 커플 확인 문항을 통한 판별 및 응답자 기본정보-아이피(IP)주소, 전화번호, 이름, 이메일 주소-동일자, 무작위 추출을 통한 커플 확인 전화를 통해서 판별하였다. 또 1인 다수조사 참여의 경우는 아이피(IP)주소 및 응답자 정보 등을 통한 매칭으로 판

별하였다. 응답최소시간 범위는 Pre-test를 통한 평균응답시간을 산출하여 극 최소시간(1분)응답자를 제외하였다. 이들의 연령대는 20대~30대이며 평균연령은 남자 26.6세, 여자 25.0세이다. 교제기간은 3개월 이상~6개월 미만(15.5%), 6개월 이상~1년 미만(21.5%), 1년 이상~2년 미만(23.0%), 2년 이상~3년 미만(12.4%), 3년 이상(27.6%)이다. 데이트 빈도는 1주일에 1회 이하(23.6%), 1주일에 2~3 회(44.1%), 1주일에 4~5 회(14.5%) 거의 매일(17.8%) 순 이었다. 직업분포는 대학(원)생 36.8%, 사무/기술직 30.1%, 자유/전문직 8.6% 기타 순이다.

도구

성인애착유형척도

Brennan(2000)의 ECR-R(Experience of close relationship : R)을 김성현(2003)이 번안하고 확장적 요인분석과 문항반응이론을 통하여 타당화한 친밀관계경험검사를 사용하였다. ECR-R은 모두 36문항이며 애착불안하위척도 18문항, 애착회피하위척도 18문항이다. 김성현(2003)의 연구에서 검사도구의 신뢰도는 각각 .89, .85이다. 본 연구에서는 문항도구의 신뢰도가 애착불안 .92 애착회피 .81이었다. 애착불안과 애착회피의 조합에 따라 애착유형을 분류하였는데 그 기준점을 평균으로 하여 애착회피와 애착불안이 모두 평균보다 낮으면 <안정형>, 애착회피는 평균보다 낮고 애착불안이 평균보다 높으면 <집착형>, 애착회피는 평균보다 높고 애착불안이 평균보다 낮으면 <거부형>, 애착회피와 애착불안이 평균보다 모두 높으면 <두려움형>으로 분류된다.

4가지 애착유형별 특징은 다음과 같다. <안정형>은 내적 일관성과 자아존중감이 높고, 타인에 대해 긍정적이고 대인관계에서 친밀성을 추구하며 따뜻하고 정이 많다. <두려움형>은 자아존중감이 낮고 거부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친밀한 관계를 회피한다. 친밀한 관계를 갈망하면서도 회피하는 내적 갈등이 많고 자의식이 강하다. <집착형>은 대인관계에 집착한다. 관계를 이상화하며 내적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 자아 존중감을 추구하기 위해 타인에게 의존하기 때문에 관계에 과도하게 몰입한다. <거부형>은 자아존중감은 높지만 친밀한 관계의 중요성을 경시한다. 친밀한 관계를 회피하고 타인에 대한 의존을 과도하게 경시하고 자신만을 믿기 때문에 홀로 고립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위의 유형과 특징은 Bartholomew와 Horowitz(1991)이 제안한 것을 Brennan, Clark와 Shaver(1998)가 약간 수정한 것이다.

이성관계 만족도 질문지

권정혜, 채규만(1999)이 제작한 결혼만족도 검사에서 이복동(2000)이 미혼남녀에게 적합하다고 여겨지는 하위 요인 4가지를 선별하여 제작한 검사이다. 이 4가지 요인은 <전반적 불만족>, <문제해결 의사소통문제>, <정서적 의사소통 문제>, <공유시간 갈등> 등으로 각 척도에서 낮은 점수를 얻을수록 이성 관계에서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이복동의 이성교제만족 척도의 점수산출과정에서 문항 중복 및 리버스(Reverse) 척도 비 고려 등의 오류가 발견되어 척도 점수를 재 산출하였다.

이를 위해 각 문항이 척도점수 산출에 적절한 문항인지를 식별해 내기 위해, Hi-Low 50% 방법을 이용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각 척도별 점수를 기초로 상위(50%)와 하위(50%)의 두 집단으로 나누어 상·하위 집단 간에 각 문항별 차이검증 및 Eta값을 산출하였다. 차이검증 결과 대부분이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고, $Eta^2 < .05$ 인 문항은 제외한 후 최종 척도 점수를 산출하였다. 각 하위요인별 신뢰도는 '전반적 불만족'이 .87, '정서적 의사소통 문제'가 .75, '문제해결 의사소통 문제'는 .80 '공유시간 갈등'은 .70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4가지 요인의 관계만족 점수를 각 개인별 개별 값으로 산출하였다.

'전반적 불만족'은 이별과 같은 이성관계의 미래에 대한 부정적인 기대와 전반적인 관계에 대한 불만족의 정도를 살피는 것이다. '문제해결의사소통 문제'는 이성파트너와의 의견 차이를 해결하는 방법, 민감한 문제에 대한 의논 여부, 구체적인 문제해결책을 찾아내는지의 여부를 포함하고, '정서적 의사소통 문제'는 이성파트너의 애정이나 지지, 정서적 친밀감, 정서적 이해와 공감의 정도를, '공유시간 갈등'은 연인이 함께 보내는 시간이나 여가 활동이 있는지와 공유시간에 대한 관심이 있는지를 포함한다.

자료분석

본 조사는 웹 메일 방식으로 실시하였다. 웹 메일 방식

은 설문지를 온라인용에 맞게 웹 설문지로 작성하여 조사 대상자에게 메일로 발송하고 설문에 답을 하게 되면 응답 결과가 실시간으로 코딩된다. 조사기간은 2007년 12월 7일~2008년 1월 17일 까지였다. 애착유형별 이성교제만족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와 다변량 분석,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이성교제만족 척도의 문항 적절성을 알아보기 위해 Hi-Low 50% 방법을 이용하여 차이검증(F) 및 Eta값을 산출하였다. 자료처리는 SPSS Windows 15.0 Version을 사용하였다.

결 과

성인애착유형별 조합에 따른 관계만족

성인애착유형별 남녀 조합에 따른 관계만족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성인애착유형별 남자 대 여자 조합의 이성 관계만족을 표 1에, 성인애착유형별 여자 대 남자 조합의 이성 관계만족은 표 2에 각각 제시하였다.

성인애착유형을 남자대 여자의 조합으로 본 이성교제만족의 차이를 살펴보면, 애착유형별 조합은 이성교제만족의 하위 4가지 차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전반적 불만족' 차원에서는 집착형(남) : 거부형(여) 조합이 7.33으로 불만족 수준이 가장 높았으며 안정형(남) : 안정형(여)의 조합이 2.51로 불만족 수준이 가장 낮았다. 이는 집착형(남) : 거부형(여)가 커플을 이룰 때 관계 속에서 전반적으로 불만족을 경험한다는 결과이다.

'정서적 의사소통문제' 차원에서는 집착형(남) : 집착형(여) 조합이 5.60으로 가장 불만족 수준이 높았고 안정형(남) : 안정형(여) 조합이 2.74로 불만족 수준이 가장 낮았다. 집착형(남) : 집착형(여)가 커플을 이루면 관계에 과도한 몰입과 의존을 하게 되어 정서적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다는 결과이다. '문제해결 의사소통문제'차원에서 집착형(남) : 거부형(여)의 불만족 수준이 9.28로 높게 나타났고, 안정형(남) : 안정형(여)가 5.34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나, 이 차원에서는 모든 커플들이 평균이상의 높은 불만족수준을 나타내었다. 그 불만족 수준은 안정형(여) > 두려움형(여) > 집착형(여) > 거부형(여)순 이었다.

'공유시간갈등'차원 또한 집착형(남) : 거부형(여)의 불만족이 3.2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안정형(남) : 안정형

표 1. 성인애착유형별 남자 대 여자 조합의 이성관계 만족 기술통계

애착유형별 조합	이성관계 만족	M	SD	N
안정형(남) : 안정형(여)	전반적 불만족	2.51	3.67	35
	정서적 의사소통 문제	2.74	3.17	
	문제해결 의사소통 문제	5.34	4.15	
	공유시간 갈등	1.26	1.40	
안정형(남) : 집착형(여)	전반적 불만족	5.08	4.40	38
	정서적 의사소통 문제	4.66	3.16	
	문제해결 의사소통 문제	7.66	3.96	
	공유시간 갈등	2.16	2.07	
안정형(남) : 거부형(여)	전반적 불만족	4.36	5.43	44
	정서적 의사소통 문제	3.91	3.60	
	문제해결 의사소통 문제	6.00	4.72	
	공유시간 갈등	2.52	2.58	
안정형(남) : 두려움형(여)	전반적 불만족	5.68	5.18	44
	정서적 의사소통 문제	5.39	3.31	
	문제해결 의사소통 문제	9.05	4.33	
	공유시간 갈등	2.91	2.28	
집착형(남) : 집착형(여)	전반적 불만족	6.51	3.82	35
	정서적 의사소통 문제	5.60	2.43	
	문제해결 의사소통 문제	8.86	3.33	
	공유시간 갈등	3.14	2.12	
집착형(남) : 거부형(여)	전반적 불만족	7.33	4.72	18
	정서적 의사소통 문제	4.89	2.37	
	문제해결 의사소통 문제	9.28	3.56	
	공유시간 갈등	3.28	2.47	
집착형(남) : 두려움형(여)	전반적 불만족	6.27	4.42	48
	정서적 의사소통 문제	5.10	2.95	
	문제해결 의사소통 문제	8.06	4.08	
	공유시간 갈등	2.35	1.93	
거부형(남) : 거부형(여)	전반적 불만족	5.61	4.27	28
	정서적 의사소통 문제	4.96	3.14	
	문제해결 의사소통 문제	8.11	4.02	
	공유시간 갈등	2.68	2.02	
거부형(남) : 두려움형(여)	전반적 불만족	6.03	4.65	34
	정서적 의사소통 문제	4.53	2.98	
	문제해결 의사소통 문제	8.35	4.04	
	공유시간 갈등	2.71	2.41	
두려움형(남) : 두려움형(여)	전반적 불만족	6.94	3.94	50
	정서적 의사소통 문제	5.06	2.77	
	문제해결 의사소통 문제	8.94	3.40	
	공유시간 갈등	3.16	2.04	

(여)가 1.26으로 가장 낮은 불만족을 나타냈다. 전체적으로 볼 때 남자 대 여자의 조합에서는 집착형(남) : 거부형(여)의 조합의 불만족 수준이 가장 높았다.

성인애착유형을 여자 대 남자의 조합으로 본 이성교제 만족도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거부형(여) : 두려움형(남)의 조합은 ‘전반적 불만족’ 8.96, ‘정서적 의사소통 문제’

6.75, ‘문제해결 의사소통 문제’ 10.04, ‘공유시간 갈등’ 3.20, ‘정서적 의사소통 문제’ 2.86 ‘문제해결 의사소통 문제’ 3.83으로 4개 차원 모두에서 불만족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정형(여) : 안정형(남)은 ‘전반적 불만족’ 3.20, ‘정서적 의사소통 문제’ 2.86 ‘문제해결 의사소통 문제’ 4.89, ‘공유시간 갈등’ 1.71로 불만족 수준이 가장 낮았다. 안정형(여) : 안정형(남)의 조합을 제외한 모든 조

표 2. 성인애착유형별 여자 대 남자 조합의 이성관계 만족 기술통계

애착유형별 조합	이성관계 만족	M	SD	N
안정형(여) : 안정형(남)	전반적 불만족	3.20	3.55	35
	정서적 의사소통 문제	2.86	2.67	
	문제해결 의사소통 문제	4.89	3.91	
	공유시간 갈등	1.71	1.93	
안정형(여) : 집착형(남)	전반적 불만족	5.36	5.63	22
	정서적 의사소통 문제	3.77	3.28	
	문제해결 의사소통 문제	5.95	5.12	
	공유시간 갈등	2.27	2.35	
안정형(여) : 거부형(남)	전반적 불만족	2.81	3.27	48
	정서적 의사소통 문제	2.63	2.51	
	문제해결 의사소통 문제	5.83	3.46	
	공유시간 갈등	1.27	1.75	
안정형(여) : 두려움형(남)	전반적 불만족	4.41	4.62	22
	정서적 의사소통 문제	3.55	2.91	
	문제해결 의사소통 문제	7.59	5.25	
	공유시간 갈등	1.82	2.24	
집착형(여) : 집착형(남)	전반적 불만족	7.40	3.64	35
	정서적 의사소통 문제	5.26	2.62	
	문제해결 의사소통 문제	8.63	3.61	
	공유시간 갈등	3.49	2.16	
집착형(여) : 거부형(남)	전반적 불만족	7.14	5.58	28
	정서적 의사소통 문제	4.93	3.08	
	문제해결 의사소통 문제	8.75	4.53	
	공유시간 갈등	3.54	2.55	
집착형(여) : 두려움형(남)	전반적 불만족	7.49	3.63	74
	정서적 의사소통 문제	5.74	2.59	
	문제해결 의사소통 문제	9.96	3.23	
	공유시간 갈등	3.11	2.00	
거부형(여) : 거부형(남)	전반적 불만족	6.18	4.30	28
	정서적 의사소통 문제	4.54	3.01	
	문제해결 의사소통 문제	6.93	3.87	
	공유시간 갈등	2.79	2.30	
거부형(여) : 두려움형(남)	전반적 불만족	8.96	5.14	24
	정서적 의사소통 문제	6.75	2.98	
	문제해결 의사소통 문제	10.04	3.41	
	공유시간 갈등	3.83	2.01	
두려움형(여) : 두려움형(남)	전반적 불만족	8.18	4.67	50
	정서적 의사소통 문제	5.24	2.23	
	문제해결 의사소통 문제	9.62	2.97	
	공유시간 갈등	3.54	2.13	

합이 ‘문제해결 의사소통’차원에서 불만족이 높게 나타났다. 안정형(여) : 거부형(남)의 조합이 안정형(여) : 안정형(남)의 조합보다 문제해결 의사소통을 제외한 3차원에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볼 때 안정형(여)와 조합을 이룰 때가 안정형(남)과 조합을 이룰 때 보다 더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성인애착유형조합과 이성관계 만족 분석결과

‘전반적 불만족’, ‘정서적 의사소통문제’, ‘문제해결의 사소통문제’, ‘공유시간갈등’의 4개 차원에 대한 다변량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3. 전반적 불만족의 애착유형별 조합, 성별, 애착유형별조합과 성별의 상호작용 영향

변량원	SS	df	MS	F	p
애착유형별 조합(A)	1,894.046	9	210.450	10.96	0.00
성별(B)	37.990	1	37.990	1.98	0.16
상호작용(A)*(B)	263.420	9	29.269	1.52	0.14
오차	13,824.007	720	19.200		
전체	41,781.000	740			

a. R 제곱=.138(수정된 R 제곱=.115)

“전반적 불만족”은 ‘애착유형별 조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나($F=10.961, p<.001$), 성별 및 상호작용의 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정서적 의사소통 문제의 애착유형별 조합, 성별, 애착유형별조합과 성별의 상호작용 영향

변량원	SS	df	MS	F	p
애착유형별 조합(A)	622.661	9	69.185	8.32	0.00
성별(B)	4.162	1	4.162	0.50	0.48
상호작용(A)*(B)	182.211	9	20.246	2.43	0.01
오차	5,990.321	720	8.320		
전체	22,810.000	740			

a. R 제곱=.119(수정된 R 제곱=.096)

“정서적 의사소통 문제”는 ‘애착유형별 조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F=8.316, p<.001$), 상호작용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2.433, p<.05$).

표 5. 문제해결 의사소통 문제의 애착유형별 조합, 성별, 애착유형별조합과 성별의 상호작용 영향

변량원	SS	df	MS	F	p
애착유형별 조합(A)	1,522.292	9	169.144	11.15	0.00
성별(B)	3.474	1	3.474	0.23	0.63
상호작용(A)*(B)	254.700	9	28.300	1.87	0.05
오차	10,917.698	720	15.163		
전체	59,951.000	740			

a. R 제곱=.143(수정된 R 제곱=.120)

표 6. 공유시간 갈등의 애착유형별 조합, 성별, 애착유형별조합과 성별의 상호작용 영향

변량원	SS	df	MS	F	p
애착유형별 조합(A)	289.998	9	32.222	7.14	0.00
성별(B)	2.371	1	2.371	0.53	0.47
상호작용(A)*(B)	95.447	9	10.605	2.35	0.01
오차	3,250.682	720	4.515		
전체	8,943.000	740			

a. R 제곱=.107(수정된 R 제곱=.083)

성별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문제해결 의사소통 문제”는 ‘애착유형별 조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나($F=11.555, p<.001$), 성별 및 상호작용 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유시간 갈등”은 ‘애착유형별 조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F=7.137, p<.001$), 상호작용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2.349, p<.05$).

사후검정결과

성인애착유형조합과 이성 관계만족 분석결과에 대해 각각의 값이 구체적으로 어느 집단 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동일집단군 분석을 통해서 살펴보았다. 동일집단군 분석에서는 각 종속변수 값이 어느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으면 동일집단군으로 분류된다.

“전반적불만족”차원의 집단 간 차이를 보면, <안정형 : 안정형>집단과 나머지 집단과의 비교에서 안정형 : 거부형, 안정형 : 집착형을 제외한 7개의 집단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안정형이 안정형과 거부형, 집

표 7. 동일집단군 분류표 : 전반적불만족

애착유형별 조합	N	집단군		
		1	2	3
안정형 : 안정형	70	2.8571		
안정형 : 거부형	92	3.5543	3.5543	
안정형 : 집착형	60	5.1833	5.1833	5.1833
안정형 : 두려움형	66		5.2576	5.2576
거부형 : 거부형	56		5.8929	5.8929
집착형 : 집착형	70			6.9571
집착형 : 두려움형	122			7.0082
집착형 : 거부형	46			7.2174
거부형 : 두려움형	58			7.2414
두려움형 : 두려움형	100			7.5600
유의확률		0.061	0.059	0.050

표 8. 동일집단군 분류표 : 정서적 의사소통 문제

애착유형별 조합	N	집단군		
		1	2	3
안정형 : 안정형	70	2.8000		
안정형 : 거부형	92	3.2391	3.2391	
안정형 : 집착형	60	4.3333	4.3333	4.3333
거부형 : 거부형	56		4.7500	4.7500
안정형 : 두려움형	66		4.7727	4.7727
집착형 : 거부형	46			4.9130
두려움형 : 두려움형	100			5.1500
집착형 : 집착형	70			5.4286
거부형 : 두려움형	58			5.4483
집착형 : 두려움형	122			5.4918
유의확률		0.061	0.061	0.359

착형과 커플을 이룰 경우 불만족수준이 비슷하지만 나머지 집단은 불만족이 위 3개 집단보다 더 높다는 결과이다.

<안정형 : 거부형>집단은 ‘집착형 : 집착형’, ‘집착형 : 두려움형’, ‘집착형 : 거부형’, ‘거부형 : 두려움형’, ‘두려움형 : 두려움형’집단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기타 집단과는 차이가 없었다. 여기에서 안정형 : 안정형, 안정형 : 거부형은 불만족수준이 낮은 집단이며, 나머지 불안정유형조합집단과는 불만족의 차이가 크다는 결과이다.

<안정형 : 집착형>집단의 경우는 ‘두려움형 : 두려움형’ 집단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나머지 집단과는 차이가 없었다. <안정형 : 두려움형>집단은 ‘안정형 : 안정형’, ‘두려움형 : 두려움형’집단과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으며, <거부형 : 거부형>집단은 ‘안정형 : 안정형’집단과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집착형 : 집착형>집단, <집착형 : 두려움형>집단, <집착형 : 거부형>집단, <거부형 : 두려움형>집단은 ‘안정형 : 안정형’, ‘안정형 : 거부형’집단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기타 집단과는 차이가 없었다. 위의 안정형 : 안정형, 안정형 : 거부형 집단의 반대 결과이다. <두려움형 : 두려움형>집단은 안정형과 조합을 이룬 4개 집단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기타 나머지 집단과는 차이가 없었다.

“정서적 의사소통 문제”차원의 집단 간 차이를 보면, <안정형 : 안정형>집단은 ‘안정형 : 집착형’, ‘안정형 : 거부형’집단 외 7개 집단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이는 2개 집단과는 만족의 수준이 비슷한 반면 7개의 집단은 만족도 수준에서 큰 차이가 있다는 결과이다. <안정형 : 거부형>집단은 ‘안정형 : 안정형’, ‘안정형 : 집착형’, ‘거부형 : 거부형’을 제외한 5개 집단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안정형 : 집착형>집단은 다른 집단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거부형 : 거부형>집단은 ‘안정형 : 안정형’집단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나머지 집단과는 차이가 없었다. <안정형 : 두려움형>집단은 ‘안정형 : 안정형’, ‘안정형 : 거부형’집단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기타 집단과는 차이가 없었다.

<집착형 : 거부형>집단도 ‘안정형 : 안정형’, ‘안정형 : 거부형’집단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나머지 집단과 차이는 없었다. <두려움형 : 두려움형>집단, <집착형 : 집착형>, <거부형 : 두려움형>, <집착형 : 두려움형> 집단도 마찬가지로 각각 ‘안정형 : 안정형’, ‘안정형 : 거부형’ 집단과의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나머지 집단과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해결 의사소통 문제”차원의 집단 간 차이를 보면, <안정형 : 안정형>집단은 ‘안정형 : 거부형’, ‘안정형 : 집착형’, 집단을 제외하고 모든 집단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

표 9. 동일집단군 분류표 : 문제해결 의사소통 문제

애착유형별 조합	N	집단군			
		1	2	3	4
안정형 : 안정형	70	5.1143			
안정형 : 거부형	92	5.9130	5.9130		
안정형 : 집착형	60	7.0333	7.0333	7.0333	
거부형 : 거부형	56	7.5179		7.5179	
안정형 : 두려움형	66	8.5606		8.5606	
집착형 : 집착형	70	8.7429		8.7429	
집착형 : 거부형	46	8.9565		8.9565	
거부형 : 두려움형	58	9.0517		9.0517	
집착형 : 두려움형	122	9.2131		9.2131	
두려움형 : 두려움형	100	9.2800		9.2800	
유의확률		0.113	0.322	0.076	0.199

였으며, <안정형 : 거부형>집단은 ‘안정형 : 안정형’, ‘안정형 : 집착형’, ‘거부형 : 거부형’ 을 제외한 6개 집단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안정형 : 집착형>의 경우는 ‘집착형 : 두려움형’, ‘두려움형 : 두려움형’ 집단과의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나머지 집단과는 차이가 없었다. <거부형 : 거부형>집단은 ‘안정형 : 안정형’ 집단과만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으며, ‘안정형 : 두려움형’ 집단은 ‘안정형 : 안정형’, ‘안정형 : 거부형’ 집단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집착형 : 집착형>집단과 <집착형 : 거부형>집단, 그리고 <거부형 : 두려움형>집단은 각각 ‘안정형 : 안정형’, ‘안정형 : 거부형’ 집단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그 외 나머지 집단과는 차이가 없었다. <집착형 : 두려움형>과 <두려움형 : 두려움형>은 각각 ‘안정형 : 안정형’, ‘안정형 : 집착형’, ‘안정형 : 거부형’ 집단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공유시간 갈등”차원의 집단 간 차이를 살펴보면, <안정형 : 안정형>집단은 안정형과 조합을 이룬 안정형, 거부형, 집착형, 집단을 제외한 6개 집단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안정형 : 거부형>집단은 ‘거부형 : 두려움형’, ‘집착형 : 집착형’, ‘두려움형 : 두려움형’ ‘집착형 : 거부형’, 집단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기타 집단과는 차이가 없었다. <안정형 : 집착형>집단은 ‘두려움형 : 두려움형’ 집단과의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표 10. 동일집단군 분류표 : 공유시간 갈등

애착유형별 조합	N	집단군			
		1	2	3	4
안정형 : 안정형	70	1.4857			
안정형 : 거부형	92	1.8696	1.8696		
안정형 : 집착형	60	2.2000	2.2000	2.2000	
안정형 : 두려움형	66	2.5455	2.5455	2.5455	2.5455
거부형 : 거부형	56	2.7321		2.7321	
집착형 : 두려움형	122	2.8115		2.8115	
거부형 : 두려움형	58	3.1724		3.1724	
집착형 : 집착형	70	3.3143		3.3143	
두려움형 : 두려움형	100	3.3500		3.3500	
집착형 : 거부형	46	3.4348		3.4348	
유의확률		0.103	0.223	0.051	0.300

나머지 집단과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정형 : 두려움형>집단은 어떤 집단과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거부형 : 거부형>집단은 ‘안정형 : 안정형’ 집단과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집착형 : 두려움형>집단, <거부형 : 두려움형>집단, <집착형 : 집착형>집단, <집착형 : 거부형>은 ‘안정형 : 안정형’, ‘안정형 : 거부형’ 집단과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두려움형 : 두려움형>은 ‘안정형 : 안정형’, ‘안정형 : 집착형’, ‘안정형 : 거부형’ 집단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논 의

본 연구의 목적은 이혼 사유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부간의 성격차이를 결혼 전에 미리 알고 대비하여 원만한 혼인생활을 영위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기초적인 자료를 찾는 데에 있다. 이에 성인애착유형을 매개로 하여 각 유형의 조합이 관계 속에서 어떠한 작용을 하는지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인애착유형별 조합에 따른 남자 대 여자의 이성 관계만족의 차이를 보면 안정형(남) : 안정형(여)의 커플은 4개 하위 차원에서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반면에 집착형(남)과 거부형(여)가 커플을 이루었을 때 ‘전반적 불만족’과 ‘문제해결 의사소통 문제’, ‘공유시간갈등’의 3

개차원에서 높은 불만족을 나타냈다. 이 커플은 전반적으로 불만족을 느끼고 있고 문제해결을 위한 의사소통이나 함께 하는 시간에 있어서 아주 높은 불만족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관계에 과도하게 몰입하는 집착형과 홀로 고립되어 있는 거부형이 커플을 이루었을 때 남자는 쫓아가고 여자는 숨어버리는 형태를 취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런 형태는 문제해결에 있어 해결방법, 해결을 위한 의논, 해결책 찾아내기를 위한 대화가 쉽지 않을 것이며, 파트너와 함께 하는 시간이나 여가활동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많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런 상태가 오래 지속될 경우 이별과 같은 미래에 대한 부정적인 기대를 하게 되므로 관계에 만족하지 못하고 갈등 속에 있거나 결혼으로 이어진다 하더라도 원만한 혼인생활이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집착형의 남편들 및 집착형의 아내들과 거부형 아내들이 그들의 파트너의 관계만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Banse(2004)의 연구와도 일치하였다.

또 집착형(남)과 집착형(여)가 커플을 이루었을 때 ‘정서적 의사소통문제’에서 다른 커플에 비해 불만족도가 높았다. 이는 Scott와 Cordova(2002)가 불안-양가(애착)의 3범주 형으로 집착형에 해당적 애착에서 높은 점수를 보인 남편과 부인들에게서 부부의 적응과 우울증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연구결과에서와 같이 집착형이 관계의 지나친 몰입으로 파트너를 구속하거나 서로의 경계를 침범하게 되면서 감정적, 정서적 문제로 연결될 수 있음을 말해준다. 따라서 이들은 서로의 감정이나 느낌을 나눌 적절한 수단의 필요성이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커플이다.

여기서 특이한 사항은 ‘문제해결 의사소통문제’차원에서 모든 커플들이 평균 이상의 높은 불만족을 나타냈다는 것이다. 이는 한국의 많은 미혼 남녀들이 문제해결을 위한 의사소통에서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따라서 이는 결혼 전에 문제해결이나 갈등해결을 위한 의사소통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훈련을 통하여 자신의 의사소통 방법을 점검하고 보완 수정했을 때 성공적인 혼인생활로 이어질 수 있음을 나타내 주는 좋은 지표가 된다고 하겠다.

전체적으로 남자 대 여자의 조합에서는 집착형의 남자가 관계에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문제에서 제기한 안정형이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가설과는 다르게 안정형 남자와 커플을 이룬 경우에도 여성이 불안정한 유형이면 불만족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안정형 남성이 불안정한 여성에게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성인애착유형별 조합에 따른 여자 대 남자의 관계만족의 차이에서도 안정형(여) : 안정형(남)의 커플들이 4개 차원 모두에서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그러나 거부형(여) : 두려움형(남)의 커플들은 ‘전반적 불만족’ ‘정서적 의사소통 문제’ ‘문제해결 의사소통 문제’ ‘공유시간 갈등’ 등 4개 차원 모두에서 불만족이 높게 나타났다. 거부형의 친밀한 관계를 회피하고 홀로 고립되려는 특성과 두려움형의 파트너가 거부할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친밀한 관계를 회피하는 특성, 즉 서로 회피하는 공통된 특성으로 인해 모든 영역에서 어려움이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위에서 거부형의 아내들이 자신의 파트너의 관계만족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Banse(2004)의 지적이 있었던 것처럼, 두려움형은 커플들의 적응과정에서 역기능을 불러오고 이성관계의 시작이나 지속을 어렵게 만든다는 결과들(Scott 등, 2002; 김광은 외, 2005; 이복동, 2000)이 있는 바, 거부형(여) : 두려움형(남)의 커플은 결혼으로 이어질 경우 원만한 혼인생활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위 남자 대 여자의 조합에서 ‘문제해결의사소통’차원에서 모든 커플들에게서 불만족을 보였던 것과 달리 여자 대 남자의 조합에서는 안정형(여) : 안정형(남)의 커플들은 불만족이 낮게 나타났다. 하지만 그 외의 모든 커플들에게서는 불만족이 높게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안정형(여)과 커플을 이룰 때가 안정형(남)과 커플을 이룰 때보다 더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불안정형의 남성이라도 안정형의 여성을 만날 경우 만족도가 높을 수 있다. 그러나 안정형의 남성이 불안정형의 여성을 만났을 경우에는 만족도가 그리 높지 못하다. 이는 안정형이 보여주는 대인관계에서의 친밀성 추구나 따뜻하고 정이 많은 특성 등이 남성성, 여성성의 사회적 역할과 기대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 같다.

이러한 결과들은 안정형의 긍정적 영향과 불안정형의 부정적 영향이 배우자의 애착에 따라서 증폭되거나 감소

된다는 Banse(2004)의 연구결과와 관계가 있으며, 여성들이 불안정형의 남성들과 커플로 맺어졌을 때도 관계갈등에서 스트레스 반응이 낮은 이유가 성역할기준에 의한 것이라는 Powers 등(2006)의 연구결과와도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따라서 안정형(여)와 조합을 이루었을 때 관계만족도가 더 높을 수 있으며 이는 안정형이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가설이 부분적으로 성립됨을 말한다.

둘째, 성인애착유형조합과 이성 관계만족의 다 변량 분석의 결과를 요약하면 ‘전반적 불만족’ 차원과 ‘문제해결 의사소통 문제’ 차원은 애착유형별 조합에 영향을 받으나 성별이나 애착유형조합과 성별의 상호작용 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인애착유형의 조합만이 전반적 관계 만족과 불만족을 결정하는 요인이라는 것이다. 또 문제해결 의사소통 문제도 성인애착유형의 조합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위의 기초통계의 결과에서 모든 커플들이 ‘문제해결의사소통문제’에서 불만족의 수준이 높게 나타났으나 안정형(여) : 안정형(남)과의 커플은 비교적 만족도가 높았는데 그것은 성별의 차이로 인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성인애착유형의 조합에 의한 영향으로 봐야 할 것이다. 이는 성의 차이가 애착양식에서 발견되지 않았다는 Shi(2003)의 연구결과가 뒷받침해 주고 있다.

애착유형별 조합과 성별의 상호작용에 대한 결과는 ‘정서적 의사소통문제’ 차원과 ‘공유시간 갈등’ 차원에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인애착유형의 조합과 성별 차이가 상호 작용하여 이 2가지 차원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말한다. 이성파트너에게 애정이나 지지, 정서적 친밀감, 정서적 이해와 공감의 표현에 있어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있듯이 정서적 의사소통은 성별의 영향을 받는다. 또 연인이 함께 보내는 시간이나 여가활동에 있어서도 남녀의 차이가 관계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이 된다고 하겠다. 위 기술통계에서 논의한 안정형(여)이 안정형(남)보다 관계에서 더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결과는 바로 이 두 요인 ‘정서적 의사소통 문제’ ‘공유시간갈등’에 기인한다고 하겠다.

셋째, 위 다 변량 분석에서 ‘전반적 불만족’, ‘문제해결 의사소통 문제’는 순수하게 성인애착유형의 영향을 받고, ‘정서적 의사소통 문제’ 와 ‘공유시간 갈등’ 은 성인애착유형과 성별의 상호작용이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성인애착유형조합이 집단 간의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성인애착유형별 사후검증에 대한 결과를 해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전반적 불만족’ 차원에서 안정형과 조합을 이룬 안정형 : 안정형, 안정형 : 거부형, 안정형 : 집착형이 만족도의 수준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안정형 : 두려움형은 불만족의 수준이 높음으로 나타났다. 이는 안정형이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기 보다는 불안정유형인 두려움형이 관계에 더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 안정형 : 안정형 커플과 안정형 : 거부형의 커플의 만족도 수준이 비슷하게 나타나는데 이는 불안정유형에 해당되는 거부형도 안정형과 같은 수준의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거부형도 안정형과 마찬가지로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보상 또는 상쇄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김광은(2005)의 연구에서 거부형은 안정형에 가까운 속성을 지녔고, 이 거부형이 안정형과 짝을 이루거나 거부형끼리 커플이 되었을 때 결혼만족도나 갈등대처에서 안정형에 가깝거나 안정형보다 더 긍정적인 특성을 보인다는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그런데 불안정유형(거부형, 집착형, 두려움)끼리만 조합을 이룬 커플들의 불만족점수가 위의 두 커플(안정형 : 안정형, 안정형 : 거부형)에 비해 높다. 특히 두려움형 : 두려움형 커플들의 불만족 점수는 안정형과 조합을 이룬 커플들과 대조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전반적 불만족 차원에서 두려움형과 커플을 이룬 경우 다른 커플들에 비해 불만족 점수가 높다. 이 결과는 <두려움형>들은 친밀한 관계를 갈망하면서도 회피하는 특성 때문에 두려움형끼리 조합을 이루었을 경우, 관계의 철회나 헤어짐 등 관계 지속 면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상되고, 애정관계의 예후가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실질적으로 김광은(2005)이 결혼한 부부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두려움형>으로만 이루어진 부부는 한 쌍도 찾아 볼 수가 없었다는 것이 이 논의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

‘정서적 의사소통’ 차원에서의 결과를 보면 불안정유형끼리의 조합과 안정형 : 두려움형 커플에서 불만족 점수가 높게 나타났고 안정형 : 안정형, 안정형 : 거부형 커플은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정형 : 집착형 커플은 불만족의 수준이 중간정도의 결과로 나타났다. 여기서도 두려움형은 안정형과의 조합을 이루어도 부정적인 영

향을 끼치는 유형으로 나타났다.

‘문제해결 의사소통 문제’에서는 기술통계에서 모든 커플들의 불만족 수준이 평균이상이었으나 안정형(여) : 안정형(남) 커플에서 만족도가 비교적 높았던 것처럼 집단 간 차이에서도 안정형과 커플을 이룬 안정형 : 거부형 집단과 안정형 : 집착형 집단이 불안정 유형끼리의 커플들보다 만족도가 높았다. 이는 안정형이 문제해결 의사소통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이 결과는 안정적으로 애착된 사람들이 갈등을 다룰 때에 더 건설적인 방법을 쓴다는 Kachadourian 등(2004)의 연구와 일치한다. 그러나 안정형 : 두려움형과의 조합은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 이는 두려움형의 부정적 영향이 안정형의 긍정적 영향보다 더 강력하게 작용함을 말해주는 것이다.

‘공유시간갈등’ 차원에서는 안정형과 커플을 이룬 불안정형 모두가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커플들이 함께 보내는 시간과 여가활동에 있어서, 안정형과 커플을 이룬 불안정형들이 관계 속에서 만족스러움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안정형이 불안정유형과의 조합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말해 주는 것이다. 반면에 불안정형 : 불안정형커플들이 안정형 : 안정형, 집착형, 거부형 집단에 비해 공유시간갈등차원에서 더 불만족스러움을 나타냈다. 이 차원에서도 안정형 : 두려움형의 커플들은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서 두려움형이 위의 3개 차원에서와 같이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하겠다.

위의 결과들을 전체적으로 종합해 보면 성인애착유형별 성별조합의 이성 관계만족 기술통계 결과에서는 안정형(남) : 안정형(여)커플이 관계만족도가 높았다. 반면에 집착형(남) : 거부형(여)의 커플들이 ‘전반적 불만족’, ‘문제해결의사소통문제’, ‘공유시간갈등’ 차원에서 높은 불만족을 보였고, 집착형(남) : 집착형(여) 커플이 ‘정서적 의사소통문제’차원에서 불만족이 높았다. 또 거부형(여) : 두려움형(남) 커플이 4개 차원 모두에서 불만족이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집착형(남)이 다른 유형과의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며 ‘문제해결의사소통문제’차원에서는 안정형(여) : 안정형(남) 커플을 제외한 9개 커플들이 불만족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집단 간의 차이가 있는지

를 살펴보는 사후검정 결과에서는 안정형과 커플을 이룬 안정형 : 안정형, 안정형 : 거부형, 안정형 : 집착형에서 관계만족도가 높았으며 안정형 : 두려움형과 불안정 유형끼리의 커플들은 관계만족에서 불만족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두려움형과 두려움형이 커플을 이룰 때에 관계만족에서 불만족의 수준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상에서와 같이 안정형과 커플을 이룬 불안정유형에서 집착형과 거부형은 안정형의 영향을 받으나 두려움형은 영향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연구주제의 ‘안정형이 불안정애착유형(거부형, 집착형, 두려움형)과 조합을 이루면 관계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가설이 부분적으로 성립된다고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이 요약해 볼 수 있겠다.

첫째, 지금까지의 기존 연구들은 결혼한 커플들이나 연애중인 한쪽 파트너에 대한 자기보고를 대상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에 반해 본 연구는 현재 연애중인 커플들을 대상으로 조사 분석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성인 애착 유형별 조합에 따른 커플들의 관계만족을 보다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었다는데 의의를 두고자 한다.

둘째, 본 연구를 통해 자신의 애착유형이 파트너와의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의 유형을 밝혀낼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는 이런 유형의 사람들이 자기 인식과 문제에 대한 자각을 돕는 데에 유용한 자료로 쓰일 수 있으며 이 자료가 그들의 태도와 행동의 변화를 불러일으키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셋째, 결혼을 앞둔 미혼남녀들이 자신들의 결합이 잘 맞는지 여부를 알기 위해 결혼 전에 점이나 사주를 통해 미래의 결혼생활을 예측해 보는 우리의 풍토가 있다. 하지만 검증되지 않은 민간의 풍속에 내 인생을 걸기 보다는 표준화된 검사 도구를 통해 서로의 심리적인 결합의 안정성을 미리 알아보는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결과가 결혼을 전제로 교체하고 있는 미혼남녀들의 심리적인 결합의 안정성을 측정해 볼 수 있는 검사 도구를 개발하는데에 기초적인 자료로 쓰일 수 있다는 데에 의의를 두고자 한다.

본 연구결과를 기초로 한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이성 관계만족의 하위영역인 정서적 의사소통, 문제해결을 위한 의사소통, 공유시간에 대한 갈등에 대해 살펴보고 그 결과가 미혼 남녀들에게 문제의식을 불러일으킬 수는 있으나 행동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지는 못한다. 따라서 차후에는 성인애착유형별로 나타나는 의사소통 방식과 시간공유 방식에 대한 문제 해결 및 행동변화에 대한 긍정적 영향을 주는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

둘째, 본 연구를 통해 성인애착유형이 관계 속에서 안정형은 긍정적인 영향을, 불안정형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성간의 관계를 원활하게 하는 촉진요소와 방해요소가 분명히 존재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각 유형별 특성들에서 그러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찾아내는 구체적인 검사도구의 개발과 행동변화 프로그램에 대한 후속연구가 이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참 고 문 헌

권정혜, 채규만 (1999). 한국판 결혼만족도검사의 표준화 및 타당도 연구 I,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8(1), 123-139.

김광은, 이위갑 (2005). 연애관계에서 성인애착유형 및 요인에 따른 관계 만족.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7(1), 233 : 247.

김광은 (2005). 성인애착 유형에 따른 결혼만족도 및 부부갈등 대처 전략,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7, 707-734.

김성현 (2004). 친밀관계 경험검사 개정판 타당화 연구 : 확장적 요인분석과 문항반응이론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취구논문.

노유진 (2006). 성인애착유형이 미혼남녀의 사랑유형과 이성교제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노유진, 박정윤, 김양희 (2006). 성인애착유형과 미혼남녀의 사랑유형 및 이성교제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44(12), 31-42.

이복동 (2000). 성인애착과 이성관계만족 : 거부 민감성과 귀인양식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이영주 (2007). 애착과 의사소통 능력 및 결혼관계 만족 : 30 : 40대 성인을 중심으로.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재창, 이윤조 (2005). 성인애착과 사랑유형 및 관계만족의 관계, *교육연구논총*, 22.

임수진, 노안영 (2003). 성인애착과 이성교제, 자존감, 사회적 지지와의 관계, *전남대학교 카운슬링센터 학생생활 연구*, 35, 99-115

장휘숙 역 (2003). 애착장애의 치료. 서울 : 시그마프레스

통계청 (2007). 2006년 시도별 이혼사유별 이혼 통계 결과. <http://www.kosis.kr/newstar/star/ne02/index.jsp> 에서 2008. 3. 28 인출.

한혜영, 현명호 (2006). 성인애착과 결혼만족 부부 조망수용과 강등해결 효능감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1, 92-124.

Ainsworth, M., Blehar, M., Waters, E., & Wall, S. (1978). *Patterns of Attachment*. Lawrence Erlbaum Assoc., Hillsdale, NJ., 1978.

Banase, R. (2004). Adult attachment and marital satisfaction : Evidence for dyadic configuration effects.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21(2), 273 : 282.

Bartholomew, K., & Horowitz, L. M. (1991). Attachment styles among young adults : A test of a four-category mode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1, 226-244.

Bowlby, J [1969] (1999). *Attachment, 2nd edition, Attachment and Loss*(vol.1), New York : Basic Books.

Bowlby, J. (1973). *Separation : Anxiety & Anger, Attachment and Loss*(vol.2); (International psychoanalytical library no.95) London : Hogarth Press..

Bowlby, J. (1980). *Loss : Sadness & Depression, Attachment and Loss*(vol. 3); (International psychoanalytical library no.109). London : Hogarth Press.

Bowlby, J. (1988) *Attachment, communication, and the therapeutic process*. In J. Bowlby(Ed s.), *A secure base : Parent-child attachment and healthy human development*(pp.137-157). New York : Basic Books.

- Brennan, K. A., Clark, L. L., & Shaver, P. R. (1998). Self-report measurement of adult attachment : An integrated interview. In J. A. Simpson & W. S. Rholes(Eds.), *Attachment theory and close relationships*(pp.46-76). New York : Guilford Press.
- Bretherton, I. (Sep 1992). *The origins of attachment theory* : John Bowlby and Mary Ainsworth. *Developmental Psychology*, 28(5), 759-775.
- Scott, R. L., & Cordova, J. V. (2002). The influence of adult attachment styles on the association between marital adjustment and depressive symptoms.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6(2), 199-208.
- Hazan, C., & Shaver, P. (1987). Romantic love conceptualized as an attachment Proc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 511-524.
- Kachadourian, L. K., Fincham, F., & Davila, J. (2004). The tendency to forgive in dating and married couples : The role of attachment and relationship satisfaction. *Personal Relationships*, 11, 373-393.
- Kaitz, M., Bariahaim, Y., Lehrer, M., & Grossman, E. (2004). Adult attachment style and interpersonal distance. *Attachment & Human Development*, 6(3), 285-304.
- Kirkpatrick, L., & Davis, K. (1994) Attachment style, gender, and relationship stability : A longitudinal analysi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6, 502-512.
- Leak, G. K., & Cooney, R. R. (2001). Self : determination, Attachment Styles, and Well : being in Adult Romantic Relationships. *Representative Research in Social Psychology*, 25, 55-62.
- Lorig, K. K., Frank, F., & Joanne, D. (2004) The tendency to forgive in dating and married couples : The role of attachment and relationship satisfaction. *Personal Relationships*, 11, 373-393.
- Main, M., & Solomon, J. (1986) 'Discovery of an insecure disoriented attachment pattern : procedures, findings and implications for the classification of behavior.' *Affective Development in Infancy*, ed. T. Brazelton and M. Youngman, Norwood, NJ : Ablex.
- Mallinckrodt, B. (2000). Attachment, social competencies, social support, and interpersonal process in psychotherapy. *Psychotherapy Research*, 10(3), 239-266.
- Marchand, J. F. (2004). Husbands' and wives' marital quality : The role of adult attachment orientations, depressive symptoms, and conflict resolution behaviors. *Attachment & Human Development*, 6, 99-112.
- Pietromonaco, P. R., Greenwood, D., & Barret, L. F. (2004). Conflict in adult close relationship. In W. Steven Rholes & Jeffery A. Simpson(Eds.), *Adult attachment*(pp.267-299). New York : The Guilford Press.
- Powers, S. I., Pietromonaco, P. R., Gunlicks, M., & Sayer, A. (2006). Dating couples' attachment styles and patterns of cortisol reactivity and recovery in response to a relationship conflic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0(4), 613-628.
- Rothbard, J. C., & Shaver, P. R. (1994). Continuity of attachment across the life span. In M. B. Sperling & W. H. Berman(Eds.), *Attachment in adults : Clinical and developmental perspectives*(pp.31-71). New York : Guilfore Press.
- Scott, R. L., & Cordova, J. V. (2002). The influence of adult attachment styles on the association between marital adjustment and depressive symptoms.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6(2), 199-208.
- Shi, L. (2003). The association between adult attachment styles and conflict resolution in romantic relationships. *The American Journal of Family Therapy*, 31, 143-157.
- Spanier, Graham, B., & Robers, A. Lewis (1979). Marital Quality : A Review of the seventi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2, 825-839.

The Relationship Satisfaction Level of Romantic Couples According to Adult Attachment Styles

Myung Sook Kim

Hong Ik University

This study is to look into the satisfaction level of couples who are clustered by adults' attachment style and to analyze the styles and factors that influence the relationship. To this end, 374 couples who had been in actual relationship for more than 3months were selected. Average age of men selected was 26.6 and women's average age was 25.0. The results of the study were ; In the category of satisfaction level by adults' attachment style combination, satisfaction level was higher in couples of Secure Style Man : Secure Style Woman. Meanwhile, higher dissatisfaction level was found in couples of Preoccupied Style Man : Dismissing Style Woman and Dismissing Style Woman : Fearful Style Man. Especially Preoccupied Style had most harmful influence on relationship satisfaction. And in all types, communication for problem solving caused the highest level dissatisfaction. In case of combining with Secure Style, the satisfaction level was higher in Dismissing and Preoccupied Style but Fearful Style showed higher dissatisfaction level. This result brought the hypothesis that Secure Style has a good influence on relationship satisfaction into existence. The meanings of and suggestions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is to be discussed.

Keywords: Adult Attachment Style; Secure; Fearful; Preoccupied; Dismissing

1차원고 접수일 : 2008년 3월 31일
수정원고 접수일 : 2008년 5월 21일
게재 확정일 : 2008년 5월 22일